

## ‘제2공항 갈등’ 새 국면 치달나

제주도의회 어제 본회의서 공론화 청원 표결 끝 채택  
“도지사가 공론화 추진”... 수용 않으면 의회 뒤편으로  
집행부 도움 없을 시 추진력 상실·실효성 하락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 여부도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40명(전체 의원 41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격년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청원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청원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우선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행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지난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이 “청원을 의회가 집행부로 넘긴다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질문에 원 지사가 거듭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원 지사는 “그동안 설명회, 공청회 등이 솔하게 반복됐었고 현재는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 와서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끝까지 원 지사가 공론화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김태석 의장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냐’는 질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바랄라”고 말했다. 추진방안은 의원들과도 공론화가 필요한만큼 추후 의원총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 형평성 문제 제기과 오해의 불씨 제공을 막기 위해 찬반단체로 구성된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TF형식의 조직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행부 도움 없이 의회 주도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추진력 상실과 실효성 미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첫 발 내딛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이하 내일센터)가 24일 개소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내일센터에서는 ‘선지원 후속권’을 골자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기업취업연계 인력양성 및 기업고용지원 등이 이뤄진다. 선발된 100명의 참여자들에게는 2년 간 월 150만원 수준의 생활비가 지원되며, 6개월 간의 기본공통교육과 취업·창업·창작 등 유형별 심화교육을 이수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수행형 인턴십, 실제 창업 준비 등 3·4단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내일센터 관계자들과 내·외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당밭, 빌레왓 일구는 동굴 위 사람들의 이야기 길’ 10월 3~6일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제주시 김녕리 마을·해안과 월정리 코스서 진행  
돛제·멀치후리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길림)는 제주의 지질자원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지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행사를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와 월정리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며 제주도 세계지질공원트레일위원회(위원장 강만생) 주관으로 개최된다. 국립공원공단, 대한지질학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후원하며, 구좌읍, 구좌읍 이장단협의회,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김녕리와 월정리 등이 참여한다.

‘바당밭, 빌레왓 일구는 동굴 위 사람들의 이야기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지질트레일은 지질공원의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녕리와 월정리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센 바람을 견디고 거친 용암 대지를 일구며 사람들이 살아 가는 곳으로, 지질공원은 거친 용암 대지가 만들어진 자연과 그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는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장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녕과 월정리 길을 걸으며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행사는 10월 3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김녕리 마을코스, 김녕리 해안코스, 월정리코스에서 펼쳐진다.

개막일에는 식전행사로 김녕리 전통행사 ‘돛제’가 열린다. 돛제는 왜지를 잡아 신에게 바치는 의례의 일종으로 마을사람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축제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공연인 ‘멀치후리기’를 비롯 가수 강수

지의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사진공모전을 포함해 인증샷 이벤트와 체험행사, 마을 풍물단 공연, 구좌중앙초 난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용 박사(지질), 류춘길 박사(지질), 강경희 연구원(역사·문화), 양경식 박사(곤충) 등의 주도로 자연자원의 가치와 제주의 지질, 생태, 역사·문화 등에 대해 직접 해설을 들으면서 탐방할 수 있는 전문가 탐방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협회는 전문해설사 동행 정규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매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에 현장에서 접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본부 고길림 본부장은 “앞으로 김녕·월정 지질트레일을 세계지질공원의 모범적인 지질트레일 대표장소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라도 참가자들을 이곳으로 초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훈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과제 54건 발굴

도, 지역경제활성화TF 공동  
기준 정책 개선·확대도 많아

지역경제 어려움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54건을 발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지역경제활성화TF’는 2017년 이후 지역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경제주체와 행정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2차회의는 부서별 발굴된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54건에 대한 발표와 참여자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실천과제는 민생경제, 관광, 건설, 미래산업, 1차산업 등 5개 분야를 중

심으로 발굴됐다.

분야별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민생경제분야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상권 활력 제고,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지원 확대, 청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등 19건으로 가장 많다.

관광분야는 글로벌 관광트렌드로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등 5건, 미래산업분야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15건, 도시건설분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등 5건, 농축산식품분야는 발달물 가격안정제도 품목 확대 등 6건, 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유통·가격 안정화 등 4건이다.

다만 발굴된 실천과제는 기존 추진 정책을 지속 지원·확대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라 신규 과제 발굴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게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NH NongHyup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 행사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제주농협이  
청정제주농촌가꾸기운동을  
시작합니다

- 내농장·우리마을 아름답게 가꾸기
- 제주특별 농약·비료 빠르게 사용하기
- 세계 농업유산 ‘제주밭담’ 유지·보존
- 농촌환경 파수꾼 ‘제주농촌지킴이’ 활동
- 생활쓰레기 줄이기 범(민)도민 운동 전개

제주농협 직원 홍보모델

**제주농협**